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일 예배 2026년 3월 22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찬송하는 소리 있어 / 찬송가 19(신) 44(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시온 성과 같은 교회 / 찬송가 210(신) 245(구)

기도 / 조은영 집사

성경 봉독 / 마태복음 25장 1-13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별거벗지 않습니다 / 박화신 목사

찬송 /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찬송가 210(신) 245(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진리와 생명 되신 주 / 찬송가 630(신) 54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열처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웁니다.
2. 슬기로운과 미련함의 차이는 신중함과 분별력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영적 민감함은,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을 생각하며 긴장을 풀지 않지만, 우선의 삶의 기준이 다른 미련함은 준비하는 데에 소홀합니다(8절).
3. “깨어 있으라”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열 처녀 모두 담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의 양입니다.
4.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현세대에 기필코 주님이 주신 옷을 벗지 않는 사람들이(계16:15)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 지난 주일 설교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

1.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사람의 겉모습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의 흔적입니다. 생각하고, 분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이 본래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2. 하지만 원죄로 인해 이 모든 것이 고장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형상은 너무도 강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3. 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롬 8:29, 골 3:10). 구원은 단지 죄 사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4. 새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사람은 자기 기준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 말씀 안에서 사는 거룩함을 사모합니다(엡 4:23-24). 결국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구원은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5. 3월 29일, 다음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각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6. 출산한 가정을 축복드리며 귀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박서준(박지수,아름) 김이레(김종원,하영)

## 3월 예배 위원

안 내	조 창		최명희			
기 도	최명희(1)	최상천(8)	박래석(15)	조은영(22)	한규철(29)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깨어 있음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징조를 분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깨어 있음은  
오늘 내 영혼 안에 주님을 기다릴 실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은  
하루 종일 종말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주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신앙이 늦어질수록  
진짜 믿음은 더 선명해집니다.  
빨리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늦어지는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슬기로운 신앙입니다.